

04/18/2021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1부
&
2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시 40:1-3]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3부

‘미래의 희망 하나님의 축복’

[렘 29: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1부 중보기도 : 선교팀 (7:30am~8:3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2부 중보기도 : 마리아 권사회 (9:20am~10:20a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 6:26]

1.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은혜제단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주일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고 심령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하늘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심령을 토로하는 **눈물**의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되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재현신을 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 예배를 통해, 때마침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곤고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6.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 118:24]

1.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 되게 하옵소서.
2.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기와 시스템,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김현철목사님, 변재령목사님, 김상대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유병하장로님, 이규성장로님, 강석구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1. 거룩한 제단 위에 성령의 불과 은사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강단을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감사 전도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2. **담임 목사님과 박순애 전도사님**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하실 말씀이 살아 있고 운동력 있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3.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온 교회에 복락의 강물이 출렁이게 하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4. 마지막 4부 부흥성회까지 모든 예배를 성령의 불성광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5.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한 청지기로서 복음의 질서를 세우며 시대를 선도하게 하옵시고 불타는 열정과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빛과 진리의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6.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3차 일천번제 기도: (2021년 4월 19일~2024년 1월 13일)

1. 매일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2. 일천번제 기도제목 쓰기(헌금봉투)/ 3. 헌금작정/ 4. 새벽 예배 적극 참석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흠족히 내려주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늘 있게 하옵소서.
3. 오직 믿음만이 미래와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하나님 보다 높아진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생명의 복음, 기쁨의 안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3. 묵은 땅이 기경 되어 삶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4. 말씀을 받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5.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아 주심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 누리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하게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9:7-8]

1.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옵소서(고후9:7).
2.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금하게 하옵소서(고후8:5).
3.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4.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축도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것이요
예레미야 29:12



1. 이 번주부터 '제 3차 일천번제'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재헌신하게 하옵시고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 은혜에 빛진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3차 일천번제, 큐티,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시사철 푸른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복음적 신앙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시고 다음세대가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2.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마다 성령충만하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다음세대를 언약의 세대로 일으켜 나가게 하옵소서.
3. 중고등부의 대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기쁨의 대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4. 교육부, 성경적 성교육을 실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5. Jesus' Light 성도들이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zoom 이용해 성경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1.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간병하며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필요를 채워 주시며,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3.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4.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또 돌봄의 섬김이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속히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제단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2.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3. 성령님을 힘입어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하옵시고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역지를 세우며 제자훈련 및 선교교회로서 쓰임 받게 하옵소서.
4.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선교 재부흥의 새 길을 열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5.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할 때 닫혔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도시와 마을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 제 00 선교사님(라오스) HESED Center 를 위해/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두번째 방과후 센터 설립을 위해 • 김도현 선교사님(베네주엘라) 신학교 수업을 하는 (4/26~30)동안 인터넷에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 사역도 재개되도록 • 정부진 선교사님(탄자니아) 중학교 부지를 정부로부터 받도록/ 이웃 학교와 마찰이 없도록/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 선교사 부부를 위해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 현지에 계시는 4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 사태 진정과 인권 유린 및 살상을 그쳐지도록 • 고난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 • 전쟁과 박해가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 금지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회복/ 교회를 향한 박해를 그치도록	• 이예신 선교사님 (A 국) 암에서 완전히 자유하도록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훈 3 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혜영 선교사님(T 국) 왼쪽 영치뼈로 전이 됨	• 임진섭 선교사님(태국) 목에 있는 물혹이 제거 되도록 • 양창모 선교사님 (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00 선교사님 (인도) 비중격 판곡증(코 연골 문제) 교정 받도록



1. 평등법(H.R.5, Equality Acts)이라는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저지되게 하옵소서. 이 법안은 2월 25일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연방상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남가주 평등법 저지운동 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님)’는 저지 운동의 불길을 남가주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미국 전국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를 창설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아틀란타와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총격 살인 사건 이후, 인종 문제와 총기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두려움과 갈등이 더욱 부추겨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진리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 지혜를 더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친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의 사람들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를 진리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4. 교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 **마이크 펜스,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진전 위한 보수단체 설립:** 트럼프 행정부가 옹호했던 정책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보수단체를 설립했다고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어드밴싱 아메리칸 프리덤’(Advancing American Freedom)으로 알려진 보수 정책 단체의 출범 소식을 최근 발표한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한 성공적인 정책과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장려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이 단체는 보수 정책 솔루션을 제안하며,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정책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옹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 세계에서 세금으로 낙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저지하고, 의사, 간호사, 교사와 종교자선단체 종사자의 양심적 권리를 포함한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각오다.

• **바이든 정부, ‘낙태 관련 기관 연방 지원 금지’한 트럼프 정부 정책 폐기:**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낙태 시술을 알선하는 기관에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인 ‘타이틀 X’를 통한 예산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낙태 관련 활동을 제한했던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14일 철회했다. 이로써 연방 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들이 낙태를 원하는 클리닉 방문자에게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일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14일 뉴시스가 전했다.

• **의회, 사상 첫 ‘한국인권’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제기될 것**

• **미 대법원, 종교의 자유 지지 판결 81%… 2005년(58%)보다 크게 상승**

- 감리교 남부연회 6개 지방연합…“동성애 옹호 전도사 목회자 청빙반대”
- 인도, 지방선거서 각 정당 지지자들 충돌… 사망 이어져
- 북, 2027년 핵무기 최대 242개 보유… 서울 등 ‘핵인질’ 전략
- 니제르, 막사 교실 화재로 어린이 20명 사망
- 브라질 20대 코로나 사망자 급증
- 아프간, 미군 철수로 정치 혼란 폭력 증가 후폭풍 우려
- 유엔 대표 “미얀마 상황 시리아 사태 떠올리게 해”-무고한 시민의 죽음 잇따라
- 관세청, 세계 79개국과 공조한 마약 합동단속… 마약 6.7t 적발



‘3차 일천번제 기도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일 2차 일천번제 기도가 은혜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6일 부터 시작된 1000일 동안 작성 기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는 주제대로 기적 같은 삶속에 기도응답을 받으며 위대한 간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000일이라는 긴 시간을 작성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매일 정해진 말씀묵상과 헌금봉투에 기도제목들을 쓰고 헌금을 드리면서 하는 것은 많은 헌신이 따르는 일입니다.

1차 일천번제 기도(2015년 10월 12일- 2018년 7월 7일), 2차 일천번제 기도(2018년 7월 16일- 2021년 4월 11일) 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주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엄청난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천번제 기도 기간 동안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전염병이기에 매우 긴장된 사회 분위기가운데 현장예배가 힘들어진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교회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비상시기에 일천번제 새벽기도를 작년 3월 16일부터 금년 4월 10일까지 1년이 넘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장점은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환경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가정이나 직장관계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경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지만 2차 일천번제 기도를 마치면서 감사 특별부흥성회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현장예배로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이신 박순애전도사님은 이번 집회를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성령 충만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집회 통하여 큰 은혜 받고 3차 일천번제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 일천번제 기도 (2021년 4월 19일- 2024년 1월 13일)는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주제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일천번제 기도 참석하시는 요령은

1.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묵상 한다.
2. 매일 일천번제 헌금봉투를 가지고 기도제목들 쓰고 기도한다. (3차 일천번제 헌금은 파전도 종족 지역에 7천개 센타교회 건축헌금과 교회 Loan Pay Off 지정으로 드립니다.)
3. 헌금은 형편에 맞추어 작성해서 매주한다.
4. 새벽예배에 가능한 최선으로 참석 기도한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자 우리에게 3차 일천번제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일천번제 기도하시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받은 모델성도, 위대한 간증이 넘치는 기쁨비적인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담임 목사 드림

‘온 교회가 참다운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서 한번 더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성도의 생활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아시기 위하여 바로 위임 권위제도라는 방편을 쓰시고 있고, 인간으로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경우 세 가지를 들어 그 때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벧전 2:13-3:6) 오늘은 다시한번 순종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네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 **첫째로** 위임 권위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임권위에 대한 비방은 곧 위임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의 위임 권위자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처리는 하나님에게 맡겨 드리고 여러분이 함부로 불평을 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둘째로** 순종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사역보다 순종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위임 권위자인 시울 왕에게 대항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 **셋째로** 순종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 드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그 위임 권위자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도 안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만 하는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 **넷째로** 순종에는 한계가 있고 복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서로 다릅니다. 순종이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것이라면 복종이란 싫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한계가 있고 복종에는 한계가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위임권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순종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도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접권위인 하나님에게 불순종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성도는 복종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이나 대제사장에게 순종은 하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나 바울을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도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나 대 제사장들에게 순종은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복종한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다운 순종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참 순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임권위에 대해서도 올바른 개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참다운 순종을 배우시면 언뜻 생각하기에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면 우선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알력이 있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모두 우리가 순종자로서의 자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임 권위자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벧전 5:6 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참다운 순종을 배우고 온 교회가 참다운 순종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
김광신 목사 드림.

어느 대장장이의 기도



제가 최근에 미국 잡지를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유엔은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의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가 모여 있고 또 여러 종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단어를 유엔의 모든 회의석상에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에서는 연설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유엔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엔의 여러 기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기구 중에 하나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6.25 참전도 거기서 결정되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쓰이는 이 투표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로 만들어진 투표함을 하도 오랜 기간 사용하여 이제는 고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함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 있는 사실이 하나가 발견되었답니다. 그 철회함의 내부를 보니 그 곳에 무슨 글귀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 문구를 쓴 사람의 서명까지 적혀있는 것을 본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그 철회함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로서 아주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찰막한 에피소드 기사를 실었던 잡지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는 아마도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 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한복음 14:14

